

# “장난감 이제 빌려 쓰세요”

### 사회복지법인 조계종 마곡 충남 최초 장난감도서관 개관

충남 최초 장난감도서관이 문을 열었다. 사회복지법인 조계종 마곡(대표이사 원혜스님)은 11월 9일 아산시청 앞에서 위치한 행복무지개 장난감도서관 & 북카페 개관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사회복지법인 마곡 대표이사 원혜 스님, 북기왕 아산시장을 비롯해 김응규 시의회의장, 이명수 국회의원, 관내 보육시설장 및 사회복지 단체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지상 2층 건물은 426.65㎡ 규모로 1층에는 어린이와 부모를 위한 북카페 2층은 장난감도서관으로 구성돼 있다. 장난감 대여는 물론 놀이 체험 공간도 마련됐다.

또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열린다. 장난감 도서관은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하는 장난감놀이를 통한 심리치료를 물론 각종 상담 프로그램도 병행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사회복지법인 마곡 박재용 사무국장은 “현재 아산시에는 478개 어린이집에 약 15000여명의 원아들이 있다. 평일 주간에는 주로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말에는 맞벌이 부부가 정 등 개별적 이용이 많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장난감도서관에는 장난감과 교구 300여점이 비치돼 있으며 어린이들의 호응도와 교육적인 효과를 고려해 장난감 및 교구들



사회복지법인 조계종 마곡은 11월 9일 아산시청 앞에 위치한 행복무지개 장난감도서관 & 북카페 개관식을 가졌다.

장난감 300점 대여 가능  
1층 북카페 휴식공간 제공  
젊은 부부들에게 호응 기대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장난감 대여는 회원으로 가입해 사전 신청을 해야 가능하다.

연회비는 3만원이며 장난감은 가격에 따라 1000~5000원의 이용료를 납부하면 된다. 회원은 1회 2점을 14일 동안 대여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대여기간을 7일 연장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화~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목요일은 오후 8시까지 연장하며 토요일은 오후 4시까지다. 단 일요일 및 공휴일과 월요일은 휴관한다.

사회복지법인 마곡 대표이사 원혜 스님은 “장난감도서관 개관을 통해 10세미만 어린이 약 4만 명이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이를 계기로 각 가정의 부모들이 경제적 부담도 크게 줄어 들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건강한 가정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바란다”며 취지를 전했다. (041)534-6224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 “거제 어르신들 무병장수 하세요”

### 어르신 초청 나눔 한마당 공연·의료봉사 등 펼쳐

거제불교는 어르신과 함께 ‘나눔 한마당’을 열었다. 거제불교사원연합회(회장 호석스님)와 거제시재가복지연합회(회장 김만성)는 10월 28일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일대에서 지역 어르신을 모시고 행사를 펼쳤다.

거제불교사원연합회는 공연, 의료봉사, 발마사지, 네일아트, 이미용봉사, 장수촬영 등 다채로운 행사를 열었다. 이어 어르신들은 노래방, 물리치료실, 운동시설 등을 이용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나눔한마당은 1천여명의 어르신께 만수공양을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대강당에서 공연을 펼쳤다. 또한 거제시자원봉사센터 발마사지봉사



거제 불교는 어르신 1천 여 명을 초청 10월 28일 거제시종합 사회복지관에서 나눔 한마당을 펼쳤다.

단과 선우봉사단을 통해 200여명의 어르신께 손발톱 봉사를 실시했다. 이밖에도 대우병원, 마하병원, 섬동인한의원, 고현치과 등에서 의료진들이 무료의료봉사를 펼쳤으며, 사진속 아이들 사진관에서는 어르신 사진 촬영을 실시했다.

장 호석 스님(총명사 주지)은 “어르신들이 언제나 건강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시간간이길 바라며 나눔한마당 행사가 다소 부족함이 있더라도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남겼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 세계 평화에 동아시아 불교가 기여하길

### 한일 불교교류대회 화엄사서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와 일한불교교류협의회가 제19교구본사 화엄사 등지에서 ‘제8차 한일불교여성교류대회’를 10월 31일부터 11월3일까지 개최했다.

한국과 일본의 여성불자들의 우호증진과 불교 발전을 위해 열린 이번 대회는 부산 삼광사 산사음악회 관람을 시작으로 범어사, 화엄사, 구례 천은사, 광주 미륵사 등지를 성지순례했다.

특히 화엄사에서는 발우공양과 참선, 예불, 단주만들기, 차담 등 1박2일 동안의 템플스테이를 체험을 진행했다. 또한 삼광사 산사음악회를 통해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즐겼다.

백명숙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여성부회장은 지난 2일 열린 환영만찬 인사말에서 “이렇게 한일 불교교류대회를 열게 돼 기쁘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양국 여성불자들이 서로에 대해 좀 더 알아가고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의 노자와 유키 스님은 “수면 위에 떨어지는 한 방울의 물이 원을 그리며 넓게 퍼져 나가듯이 한·일 불자들의 만남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한국불자들의 따뜻한 접대에 감사를 표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이사장 정산 스님과 부회장 홍파 스님, 사무총장 송정 스님, 백명숙 여성부회장 등 한국불교대표단과 일한불교교류협의회 이사장 니시오카 스님, 사무총장 노자와 스님, 다카노 여성부 회장 등 100여 명이 참가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 캠페인

###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꾸꾸자

## 사하촌 환경 정비 시급하다

사하촌은 사찰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독특한 형식의 마을이었다. 이 마을은 불교국가에서 사찰의 존재와 더불어 형성된 집단공동체인데, 사찰과 사하촌은 상생의 관계를 유지하며 존재해왔다. 사하촌 사람들은 스님들이나 절집에 사는 사람들의 의식주를 책임졌고, 사찰에서는 이들에게 소정의 사례를 지불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왔다.

현대사회로 오면서 교통수단이 좋아지고 생활권이 광역화되는 바람에 사하촌이라는 개념은 이미 없어져 버린 지 오래되었다. 그래도 공간적으로는 절 아랫마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 이곳은 예전처럼 사찰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는 상

생적 구조가 아니라 사찰을 찾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구조로 변화되었다.

사찰이 위치한 곳이 산자수명함 곳이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그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다양한 유흥업소가 생겨난 것이라고 위안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이들 유흥업소들로 인해서 사찰의 수행환경은 엄청난 타격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찰을 찾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것이 상인들의 호객행위, 고기 굽는 냄새에다 술냄새까지 진동을 하니 마음먹고 사찰을 찾는 사람들의 심身に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전통사찰보존구역을 지정하고 그 구역 안에서는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다. 전통사찰보존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보면 지난날 사하촌에서 이루어지던 것들로, 불교 의식구(儀式具), 불교서적, 불교서화 및 사진, 불교공예품 등 불교문화와 관련된 상품과 사찰에서 생산하는 토산품의 판매, 전통한지, 전통문양 등 전통문화와 관련된 상품의 판매 및 전통다원의 운영, 신도의 수행, 교육, 포교, 복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운영 등이다.

이렇게 수행과 신앙생활 및 포교 그리고 불교문화의 신앙에 필요한 업종들과 마음을 내려놓고 휴식할 수 있는 행위를 담을 수 있는 업종들이 사찰 들어가는 길목에 자리를 잡고 있다면 불자들은 사찰 가는 길에서부터 부처님의 미소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사찰주변의 청정함을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사찰환경운동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 아닐 수 없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강원도 츠사찰 올라가는 길목에 늘어난 상점들은 수행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정비가 시급하다.

# 성지순례는 미암사로, 방생은 백마강으로

세계최대 와불, 의자왕 출가한 곳, 소원성취 쌀바위, 진신사리증과, 인체에 효험약수 (점심공양, 입장료 무료, 단체 및 개인 성지순례 불자님을 환영합니다)

## 미암사의 연혁

미암사는 부여에서 서쪽 보령 방향으로 16km쯤 되는데, 부여에서 15분쯤 가다가 구룡천을 따라 40분 국도로 4km정도 올라가면 왼쪽으로 금북정맥 계향산이라는 아름다운 명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다. 백제시대 침류왕때 쌀바위에 유씨 부인이 공을 들여 쌀도 나오고, 자손도언어 소원도 성취했다 하여 큰 영험이 있으므로 쌀바위(충남도지방 문화재 제 371호) 이름을 따서 무왕께서 쌀미(米), 바위암(岩), 미암사(米岩寺)라 하였다. 사촌마을을 미암부락이라고 했다. 쌀바위에서는 원적외선 응용 평가센터 시험성적서에 의하면 원적외선이 92.1% 방출 됨으로 노화방지, 성인병 제거, 중금속제거, 곰팡이 번식방지, 신진대사 촉진, 혈액순환 등 건강에 큰 도움을 준다.

미암사 만청스님은 그 후 몇차례 전소되어 일부 복원 하고 있으며, 지금은 다시 전통사찰 양식으로 고종반야 복원 불사 중에 있다. 또한 1998년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셨던 바, 2004년 납일 친견당시 자연적으로 3과로 자리를 옮겨 증과원 신비한 기적을 일으켰으며 2010년 9월 10일 진신사리 1과를 부여 백제 재현단지 능사에 기증 하였다. 서해안시대를 맞이하여 백제전 불교 문화가 중심이 되도록 부동정심의 대원력을 세워 국운융창, 국민화합을 위한 대차대비하신 삼계의 도사 큰 스승이신 석가모니부처님 세계최대열반상을 2005년 4월 17일 미암사 도량에 전구사부대중의 동참으로 원만성취 조성을 회향하게 되어 점안식을 봉행하게되었다.

소원성취기도도량 불교성지 미암사에 오셔서 악업은 소멸하고, 무량공덕 쌓으셔서 소원성취 하십시오. 적멸보궁 세계최대열반상 불교성지 미암사는 성지순례코스로서 가장 적당하며, 찾아오시는 불자들에게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미암사 TV, 라디오방영 사례

mbc 드라마가백 / kbs2 전설의고향 / mbc 라디오 전설따라삼천리 / sbs 생방송투데이 / kbs1 패지나칭칭 / kbs2 생생정보통 / mbc 공감특별한세상 / kbs, vj특공대 / mbc TV특종놀라운세상 / sbs 출발모닝와이드 / kbs2 굿모닝 대한민국 / kbs2 생생정보통 / 불교tv / cmb생방송뉴스 / 실버TV만청문화행사 / tjb 특집프로그램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21-5 전화 041)832-1188 / 팩스 041)832-1187